

전남도청 서창완,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 계주 우승

박우진과 한 조 이뤄 금메달 획득
여자 계주 김은주·장하은도 우승
한국 남녀 계주 나란히 동반 우승
전용태 등 주전급 선수 빠졌지만
금 4·은 3·동 1개로 최다 메달

전남도청 서창완과 박우진(국군체육부대) 조가 근대 5종 아시아선수권대회 계주에서 남자부 우승을 달성했다.

김은주(강원도체육회)와 장하은(경기체고)도 여자부 정상에 올라 남녀 계주를 석권했다.

서창완-박우진은 1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2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함께 1409점으로 카자흐스탄(1407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은주-장하은도 여자 계주 경기에서 1335점을 기록해 중국 팀(1296점)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남녀 계주를 석권하며 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출전국 최다 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회에 전용태(광주시청), 정진화, 김선우(경기도청), 김세희(BNK저축은행) 등 주전급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성과를 거두



서창완(전남도청)과 박우진(국군체육부대)은 1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2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경기에서 함께 1409점으로 카자흐스탄(1407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른쪽 사진은 여자계주에서 우승한 김은주(강원도체육회)와 장하은(경기체고).

주목받고 있다.

이지훈(한국토지주택공사)은 18일(현지시간) 같은 대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1506점으로 뒤사이(중국·1517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여기에 한국은 이지훈, 서창완(1489점), 김승진(1459점)의 합산 점수 4454점으로 남자 단체전에서 중국(4511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여자부는 이 대회에서 개인전 메달을 독식했다. 한국은 여자 개인전에서 정민아(BNK저축은행), 김은주, 성승민(대구시청)이 금, 은, 동메달을 휩쓸어하고 여자 단체전에서 세 선수가 우승을 합작한 데 이어 여자 계주까지 정상에 올라 이번 대회 여자부에 걸린 금메달을 모두 가져왔다.

정민아(BNK저축은행)는 17일 열린 대회 여자



김은주(강원도체육회)와 장하은(경기체고)은 1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2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계주 경기에서 함께 1335점으로 중국(1296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른쪽 사진은 여자계주에서 우승한 김은주(강원도체육회)와 장하은(경기체고).

개인전 결승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함께 138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김은주(강원도체육회)가 1382점으로 2위, 성승민(대구광역시청)이 1376점으로 3위에 오르며 시상대를 모두 한국 선수들이 채웠다.

세 선수의 합계 성적(4146점)으로 한국은 여자 단체전에서도 중국(3973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

지, 2019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대한근대5종연맹에 따르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여자 개인전 금·은·동메달을 석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부에서는 2009년 대회 때 정진화(LH), 남동훈, 이준현이 1~3위에 오른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연합뉴스

프레지던츠컵 골프 22일 개막...한국 역대 최다 4명 출전

임성재·김주형·이경훈·김시우
최경주는 인터내셔널팀 부단장에

한국 선수가 역대 가장 많이 출전하는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가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 할로 클럽에서 열린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인터내셔널의 남자 골프 대항전이다.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은 라이더컵으로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프레지던츠컵의 인터내셔널 팀에는 유럽 국가 선수들이 제외된다.

이번 대회 인터내셔널 팀 선수 12명 가운데 한국 선수가 4명이나 된다.

임성재(24)와 김주형(20)이 자력으로 선발됐고, 이경훈(31)과 김시우(27)는 단장 추천으로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했다.

이 대회에 한국 선수가 4명이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창설된 프레지던츠컵에서 한국 선수 4명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종전은 2011년 대회 때 최경주(52), 양용은(50), 김경태(36) 등 3명이



프레지던츠컵에 나가는 한국 선수들. 왼쪽부터 이경훈, 김시우, 최경주, 김주형, 임성재. /연합뉴스

출전한 사례가 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최경주가 인터내셔널 팀의 부단장도 맡아 실질적으로는 한국 선수 5명이 나가는 셈이다.

대회 방식은 첫날 포볼(2인 1조로 팀을 이뤄 각

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해당 홀 점수로 삼는 방식), 이틀째 포삼(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이 열리고 사흘째는 포볼과 포삼이 차례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12명이 일대일로 맞대결하는 싱글 매치 플레이로 치러진다.

한국 선수 4명이 2명씩 한 조를 이룰 경우 언어 소통 등 호흡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전적은 미국이 11승 1무 1패로 절대 우위를 보인다. 2005년부터 8연승 중이다.

미국은 세계 1위 스코티 세플러를 비롯해 패트릭 캔틀레이, 잰더 쇼플리, 저스틴 토머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만 5명이다.

반면 인터내셔널 팀에서는 세계 랭킹 17위 마스야마 히데키(일본)가 가장 높은 순위인 선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2019년 대회에서 3승 1무 1패(승점 3.5)로 좋은 성적을 낸 경력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임성재가 승점 3점 이상을 따내면 역대 한국 선수의 프레지던츠컵 최다 승점 기록인 최경주의 6점을 추월한다. /연합뉴스

윤이나, KLPGA 주관 대회 3년 출장 정지

상벌위, 골프 규정 위반 징계 결정
윤이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19)에 대해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이날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나갈 수 없게 됐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규정 위반 규정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올해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골프 규정을 위반했다.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아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치러 골프 규정을 위반했다. 이 대회에서는 컷 탈락했다.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또 7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장을 잠정 중단했다.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가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골프 규정 위반 이후에도 사과문 발표 전까지 대회에 출전했고, 사과문 발표 전인 7월 17일 KLPGA 투어 에버플라넨 컨스 크라운에서 우승했다.

윤이나는 이번 논란 발생 이전까지 신인상 포인트 2위, 장타 1위를 달리며 경기력과 인기를 겸비한 '차세대 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규정 위반이 벌어져 한국여자오픈을 주관했던 대한골프협회는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협회 주관 대회 출장 정지 3년 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이날 KLPGA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황선우 튀르키예 고산지대에서 심폐 강화 훈련

"숨 많이 차지만...기록 향상 기대"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19·강원도청)가 튀르키예(터키) 에르주룸의 고산지대에서 전지훈련 중이다.

20일 황선우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황선우는 지난 6일 강원도청 소속 수영선수 6명과 함께 고산지대 훈련을 위해 출국, 튀르키예 에르주룸에서 2주째 훈련 중이다.

이보는 감독이 이끄는 강원도청 수영팀은 심폐

능력 및 체력 강화를 위해 고지대 훈련을 계획했다.

훈련은 에르주룸주의 해발 2100m 고지대에 위치한 현지 수영캠프에서 약 3주간 진행되며, 독일 프로 수영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황선우는 하루 1만2000~1만3000m 수영 훈련과 함께 코어훈련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다.

황선우는 올댓스포츠를 통해 "고지대에서 훈련하다 보니 숨이 많이 찬다. 수영할 때도 평소와 같

은 페이스임에도 더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 훈련 첫 주에는 고생했다"면서 "2주 정도 훈련을 하니 몸이 적응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 기록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산지대 훈련 소감을 밝혔다.

이어 "외국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처음"이라며 "같이 운동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지내니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합동 훈련 중인 독일 프로팀은 독일, 스위스, 슬로베니아 등 총 9명의 국가대표팀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호주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독일 수영 국가대표팀의 코치를 맡았던 맷 매기가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 2관 공조2: 인터내셔널
- 3관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 4관 청불늑대사냥
- 5관 애프터: 에버 해피
-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블랙폰
- 9관 청불늑대사냥, 씬더버드
- 7관 씨네케플 헌트, 한산: 용의 출현, 블랙폰, 프린세스 아야, 오! 마이 고스트
- 8관 씨네케플 육사오(6/4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 11시 음악산책
욕망과 고독의 자화상, 뉴욕
일시: 2022. 9. 26.(월) 11: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2022. 10. 12.(수) 19:30
장소: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062-613-8245